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8.21

AUGUST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원/달러 환율

1,395.90원 (+5.9원)

KOSPI

6,852.58 (+381.41, +5.89%)

KOSDAQ

840.89(+16.43, +1.99%)

국고채 10년 금리

4.323(-0.014%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Global Asset Strategy

자산배분의 창(窓)	건설업체들은 높은 재고 물량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 [이영주]
하나채권	[8월 금통위 프리뷰] 인상을 늦출 이유가 없다 [박준우]
해외채권	재무부의 바이백 확대 [허성우]

기업분석

케이엠더블유	2027년도 이익 급증에 의심을 가질 필요 없어 [김홍식]
한국단자	숫자는 나빴고, 이유는 알았다 [송선재]
KCC	특별배당금 신설로 시가배당률 2.5~4%p 상향 가능 [윤재성]

Monthly & Weekly

통신 서비스/장비	시장 안정되면 장비주 급등합니다 [김홍식]
유틸리티	2040년 전력수요 전망치 대폭 상향 [유재선]
이차전지	6월 ESS Battery : 북미 +76% 증가 [김현수]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물산, 기아, 삼성SDI, LG, S-Oil, 농심, 로보티즈, 제닉

하나증권

2026년 8월 21일 | Global Asset Research

자산배분의 창(窓)

미국 주택시장의 이상현상 ②: 건설업체들은 높은 재고 물량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

Asset Allocation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자산배분/해외크레딧
Analyst 이영주 leeyoungju@hanafn.com

수요는 부진한데 신축주택 공급은 여전히 높다

[8/14, 미국 주택시장의 이상현상 ①: 거래는 멈췄는데 왜 집은 계속 나올까?] 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 주택시장은 매물이 다시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받아줄 수요는 충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신축주택의 공급과 재고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26년 6월 판매용 신축주택의 전체 재고는 48.5만 호, 현재 판매속도 기준 약 9.3개월분(재고 소진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록했다. 통상 5~6개월분이 수급상 균형적인 판매속도로 평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미국 전국주택건설업협회 (NAHB) 역시 높은 신축 재고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전체 재고 가운데 이미 완공됐지만 아직 판매되지 않은 주택은 팬데믹 이전 10년 (2010~2019년) 평균의 약 2배 수준까지 늘어난 상태다. 신축주택 평균 판매가격도 전년 대비 6.6% 하락했다. (중위가격 기준 YoY -2.7%)

그렇다면 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서, 건설업체들은 여전히 높은 신축 재고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

이미 지은 집은 팔아야 한다

주택건설에는 토지 확보부터 인허가, 착공, 완공까지 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수요가 약해졌다고 바로 중단하기 어렵고, 판매가 늦어질수록 토지와 건설 중인 주택에 투입된 자금도 재고에 오래 묶인다. 따라서 건설업체는 이미 진행된 재고 물량을 판매조건을 조정해서라도 자본을 회수할 유인이 크다.

실제로 이러한 대응은 건설업계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NAHB 조사에 따르면 2026년 7월 63%의 건설업체가 판매 인센티브를 제공했고, 37%는 가격을 평균 6% 인하했다. 즉 수요가 부진함에도 높은 재고 소화를 위해 가격과 판매조건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가격뿐 아니라 금융비용도 낮춘다

건설업체들은 집값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mortgage rate buydown[1]이나 closing cost 지원[2] 같은 금융 인센티브를 함께 활용하고 있다.

현재 주택수요를 억누르는 핵심 요인 중 하나가 높은 모기지 금리이다. 주택가격을 일부 낮추는 것보다 모기지 금리를 낮춰 월 상환액을 직접 줄이는 것이 구매자의 실질 구매력을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게다가 건설업체 입장에서도 기본 판매가격을 크게 낮추면 같은 단지의 다른 주택이나 향후 판매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금융지원은 개별 거래에 적용할 수 있고 시장 상황이 개선되면 다시 축소하기도 상대적으로 쉽다.

미국의 대형 주택건설업체 Lennar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Lennar는 가격과 금융 인센티브를 확대해 판매량을 유지하는 대신 마진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2026년 2분기 판매 인센티브는 평균 판매가격의 12.9%까지 높아졌고, 주택판매 매출 총이익률은 전년 동기 18%대에서 15.6%로 하락했다. 대신 일정한 판매량을 유지하면서 대량구매와 공사 효율화를 통해 비용을 낮추고 투입된 자금을 빠르게 회수하는 전략을 취했다고 밝혔다. 이는 Lennar만의 대응이 아니다. NAHB 조사에서 60%가 넘는 건설업체가 인센티브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금융비용의 일부를 건설업체가 부담하면서 재고를 소화하는 방식이 신축시장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도표 8 참고]

[1] Mortgage rate buydown: 건설업체 등이 비용을 부담해 구매자에게 적용되는 모기지 금리를 낮춰 주는 방식.

[2] Closing cost 지원: 대출·등기 등 주택 구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거래비용을 건설업체가 대신 부담하는 방식.

신축시장의 조정만으로 전체 주택가격이 무너지기는 어렵다

결국 신축시장에서는 가격 인하뿐 아니라 금리와 거래비용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표시가격보다 큰 실질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과거 일반적이었던 신축주택의 가격 프리미엄도 기존주택보다 낮아지는 모습이 꽤 빈번해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조정이 그대로 미국 전체 주택가격의 급락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미국 주택거래에서 기존주택 시장의 규모가 신축보다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신축가격 하락은 기존주택 가격에도 하방 압력을 줄 수 있지만, 무게가 다른 시장인 만큼 신축시장의 조정만으로 전체 주택가격을 크게 끌어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두 시장은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도 다르다. 건설업체는 재고가 쌓이면 가격과 금융조건을 조정해서라도 판매하고 자본을 회수해야 한다. 반면 기존주택 보유자는 같은 재고 회전 압력을 받지 않는다. 급매나 강제매각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가격을 크게 낮추기보다 매도를 미루거나 판매기간이 길어지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는 앞서 발간한 1편에서 살펴본 기존주택 시장의 '기간 조정'과도 연결된다.

주택시장의 회복에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높은 주택가격과 모기지 금리는 여전히 수요 회복 제약 요인이다. 신축 공급도 서서히 조절되고 있지만 높은 재고가 단기간에 해소될 정도는 아니며, 최근 미국의 투자 확대 역시 주택보다는 설비와 소프트웨어·R&D 등 기업투자 부문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택시장이 빠르게 새로운 확장 국면으로 전환될 여건은 강하지 않아 보인다.

신축시장에서는 건설업체가 가격과 마진을 낮추며 먼저 조정하고, 기존주택 시장에서는 거래 부진이 이어지는 동안 소득과 금융비용이 가격과의 격차를 좁혀가는 모습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주택가격 급락을 피한다면 가계 자산가치 훼손과 소비·신용 충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경제에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작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그 대신 주택시장이 다시 본격적인 확장 사이클로 돌아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미국은 오랫동안 주택 부족이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지만, 지금은 재고가 높은 수준임에도 거래가 살아나지 않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기간 조정이 길어진다면 미국 주택시장은 당분간 '집은 있지만 현재 가격과 금리로 살 수 있는 집은 부족한' 아이러니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

2026년 8월 20일 | Global Macro Strategy

하나채권

[8월 금통위 프리뷰] 인상을 늦출 이유가 없다

Fixed Income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채권 Strategist 박준우, CFA
junoopark@hanafn.com

- **수요측 인플레에 근거해 연속 인상 전망. 인상 효과 점검보다 긴축 영역에 진입할 시기**
- **올해 GDP 3.3%/근원물가 2.6%로 상향, 점도표 중간값 3.25%/평균값 3.31% 예상**
- **채권시장은 8월 인상 가능성 미반영. 듀레이션 축소 전략 유지**
- **3~7면에는 성장, 물가, 부동산, 환율, 주가의 통화정책 영향을 핵심 차트들과 함께 점검**

7월 금통위 이후 수요 개선이 추가로 확인. 8월 연속 인상 가능성에 무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7월에 이어 8월 27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00%로 **25bp 인상**할 전망이다(**8, 11월, 그리고 내년 2월 인상 전망**). 동결 소수의견이 1~2명 예상되나 중립금리 추정 범위가 2~3%임을 고려할 때 7월 인상의 효과를 점검하기보다 추가 인상을 통해 **긴축적인 영역**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상의 핵심 근거는 **수요 측 인플레이션** 압력이다. 금통위는 지난 5월 회의부터 '수요 측 인플레이션'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7월에는 이를 근거로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을 시작했다('[5월 금통위] 수요측 인플레이션을 인정한 순간', '[7월 금통위] 수요측 인플레이션을 확신한 순간'). 7월 금통위 이후에 발표된 2분기 성장률이 전기비 +0.6%로 예상을 상회하는 등 견조한 성장세가 추가로 확인됐다. 8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약 3.3%**로 5월(2.6%) 대비 큰 폭 상향하고, 근원 인플레이션도 2.4%에서 2.6%로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지난 19일, KDI는 올해 성장률과 근원물가 상승률을 각 3.2%, 2.5%로 전망했다.

향후 6개월 점도표도 상향 조정될 것이다 [도표 2]. 5월 점도표는 중앙값과 평균값이 각각 3.00%, 2.89%였다. 2회 인상을 제시했지만 인상 폭이 작을 가능성을 열어 둔 점도표였다. 이번에는 **중앙값이 3.25%**로 상향 조정되고, 3.50%에 약 7개의 점이 찍히면서 **평균값은 3.31%**가 예상된다. 채권시장은 인상 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평가할 것이다.

현재 채권시장은 **8월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다. 3개월 통안채 금리가 2.81%로 기준금리 대비 스프레드가 6bp에 불과하다. 지난 7월 금통위 이전에는 이미 2주 전부터 통안채 3개월 금리가 2.75%를 상회했다. 최소한 단기물 시장에서 8월보다 10월 인상 가능성을 훨씬 더 높게 점치고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하나채권의 전망과 같이 기준금리를 8월에 인상한다면 금리 상승 충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뒤로 늦춘다고 긴축 리스크가 축소되는 상황도 아니다. 펀더멘털은 명백하게 긴축 사이클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8월에 동결 시 일시적인 금리 하락이 예상되나 이는 추세 하락의 신호는 아닐 것이므로 **듀레이션 축소 의견**을 견지하길 권한다.

3~7면에는 **성장, 물가, 부동산, 환율, 주가의 통화정책 영향**을 점검했다.

재무부의 바이백 확대

해외채권 | 2026.8.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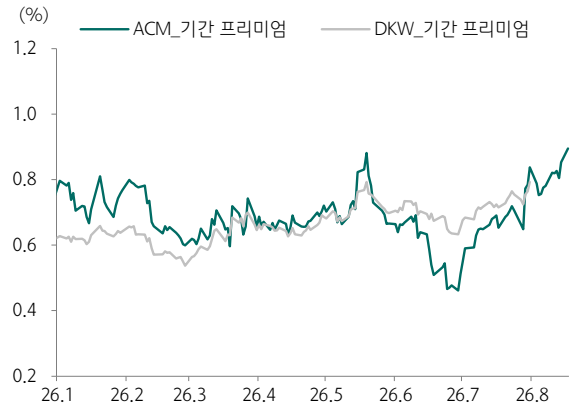
Analyst 허성우 deanheo@hanafn.com

금리 안정에 진심인 베센트

바이백 확대에도 금리 추세 전환은 역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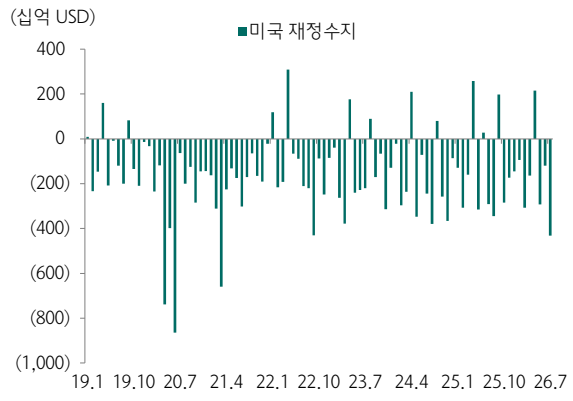
-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와 미 재무부가 급등하는 장기 금리를 억누르기 위해 전방위적인 시장 개입에 나섰다. 미 재무부는 10~20년 및 20~30년 구간의 장기 명목 이표채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바이백(Buyback) 규모를 기존 회당 최대 20억 달러에서 회당 최소 40억 달러로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 이번 조치는 9/9부터 적용되어 11/4 예정된 4분기 QRA(국채발행계획) 전까지 유지된다. 재무부는 바이백 수행 시 고품질 매도 제안(Offers)이 대거 몰리는 등 시장의 강력한 유동성 요구를 반영한 '유동성 지원'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선거를 앞두고 장기 금리와 모기지 금리를 강제로 눌러 유권자들의 체감 차입 비용을 낮추려는 정치적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는 판단이다.
- 특히 이번 발표는 불과 2주 전 3분기 QRA에서 바이백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9월 법인세 수입 유입에 따라 단기채(T-Bill) 발행을 계절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정례 스케줄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면서까지 기습 개입에 나선 배경에는 미 장기 금리와 모기지 금리 급등이 자리 잡고 있다.
- 재무부는 단기채 발행을 대폭 늘려 확보한 자금으로 유통시장의 비지표물(Off-the-run)을 사들임으로써, 전체 부채 규모는 유지하되 시장이 소화해야 할 듀레이션 공급을 줄여주는 '재무부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T)'를 단행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TGA 자금은 은행 지준을 확충해 단기적으로는 기간 프리미엄 안정을 유도할 수 있다.
- 그러나 베센트 재무장관의 이례적 플레이가 과연 장기 금리 상승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바이백 규모가 두 배 이상 늘어나도 31조 달러에 달하는 미 국채시장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 무엇보다 베센트의 전략은 현재 시장이 직면한 거시적 리스크들을 과소평가하고 시장 타이밍에 베팅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재정 적자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빅테크의 초장기 회사채 공급 확대와 BOJ 금리 인상 등 장기 금리 상방 요인은 여전하다.
- FIMA 레포 시설 언급, QRA 이표채 문구 유지, 그리고 2주 뒤 긴급 바이백 발표까지 베센트는 금리 안정에 진심이지만, 재정 건전성이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테크니컬한 바이백 수단만으로는 금리 추세를 전환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이다.

도표 1. 미국 10년물 기간 프리미엄
: 최근 장기 금리 상승은 기간 프리미엄 상승에 기인



자료: Fed,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2. 미국 월간 재정수지
: 재정 우려는 여전한 상황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2026년 08월 21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케이엠더블유 (032500)

2027년도 이익 급증에 의심을 가질 필요 없어

BUY (유지)

목표주가(12M)	70,000원
현재주가(8.20)	15,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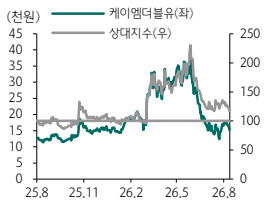
Key Data

KOSDAQ 지수 (pt)	840.89
52주 최고/최저(원)	38,200/11,430
시가총액(십억원)	653.9
시가총액비중(%)	0.14
발행주식수(천주)	42,191.7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377.7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9.8
외국인지분율(%)	6.30
주요주주 지분율(%)	
김덕용 외 1 인	30.43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27.9	281.8
영업이익(십억원)	(8.8)	63.5
순이익(십억원)	(9.5)	63.9
EPS(원)	(227)	1,513
BPS(원)	3,157	4,872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87.4	97.5	102.3	367.6
영업이익	(45.5)	(23.8)	(21.3)	100.5
세전이익	(37.4)	(30.4)	(29.4)	103.3
순이익	(38.6)	(27.0)	(29.6)	103.3
EPS	(969)	(672)	(705)	2,448
증감율	적지	적지	적지	흑전
PER	(9.06)	(21.43)	(21.66)	6.24
PBR	2.43	4.48	4.59	2.64
EV/EBITDA	(11.15)	(43.91)	(55.63)	5.80
ROE	(24.24)	(19.66)	(21.76)	53.81
BPS	3,607	3,211	3,326	5,774
DPS	0	0	0	0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매수 의견/12개월 목표가 7만원 유지, 내년엔 목표가 낮게 인식될 것

KMW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 12개월 목표주가 70,000원을 유지한다. 추천 사유는 1) 장기 이익 전망치를 기준으로 볼 때 현 시가총액은 너무 낮은 수준이고, 2) 미국 시장 동향을 감안 시 2027년 2분기부터 이익 급증이 유력해지는 상황이며, 3) 공급업체 동향을 감안하면 2027년 미국 시장 개화 이후 필터, 시스템 장비 부문에서 쇼티지 발생 가능성이 높고, 4) 장기 적자 지속에 따른 재무적 위험을 걱정하나 최근 현금 흐름, 펀딩 수급 상황, M&A 매력도를 감안하면 사실상 디폴트 리스크는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코스닥 시장 악화에 따른 단기 주가 급락으로 인해 현 주가와 목표 주가간 괴리율이 커진 상황이지만 2027년 8월까지 향후 12개월을 기준으로 보면 목표가 달성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판단하여 기존 목표가 70,000원을 유지한다. 2027년 이익 전망치 기준으로 보면 PER 30배 수준에 해당한다.

국내 시장 개화 없이도 미국 시장 동향 감안 시 2027년 2분기엔 이익 급증 전망

주파수 경매는 KMW 투자가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비싼 주파수 할당 비용을 감안할 때 통신사들이 곧바로 설비 투자에 나서는 형태를 보이며 유선과 달리 무선 장비 투자는 신규 주파수 할당과 함께 집중 투자되는 경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무선통신장비 업체들의 실적 변동성은 큰 편이며 비수기가 4~5년간 지속되는 반면 성수기로 진입하면 여태껏 보지 못했던 실적을 2년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역대급 실적은 신규 주파수 할당 시점에 시현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미국 FCC가 2027년 4월 160MHz에 달하는 어퍼 C밴드 주파수 경매를 예고했으며 2028년도엔 4.4GHz 주파수 할당에 나설 예정이다. 미국 시장 동향을 감안하면 버라이즌/AT&T 등 통신 3사 5G CAPEX가 2027년 2분기부터 급증하는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고 KMW 매출 역시 급증할 전망이다. 삼성전자 벤더로 버라이즌에 공급할 것이 유력하며 글로벌 공급 상황을 감안하면 에릭슨과 AT&T 역시 신규 매출처로 확보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올해까진 적자가 지속될 전망이지만 내년엔 투자가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예상외 이익 급증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코스닥 시장 영향으로 주가 급락한 현 시점이 장/단기 매수 적기 평가

6~7월 KMW 주가가 급락하였다. 2분기 실적이 부진한 원인도 있겠지만 코스닥 급락 원인이 컸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특별한 이유없이 시장 영향으로 과도한 주가 하락이 나타났으므로 수급 정상화가 이루어지면 3~5월과 같은 탄력적인 주가 상승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연말로 다가갈수록 2027년 실적 호전주에 대한 투자가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KMW 만한 회사도 찾기 어렵고 국내에서도 서서히 피지컬 AI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투자 구상이 펼쳐질 것이라 8~12월 KMW 주가 전망은 밝다.

2026년 8월 21일 | 기업분석

한국단자 (025540)

숫자는 나빴고, 이유는 알았다

Not Rated

목표주가(12M)	N/A
현재주가(8.20)	55,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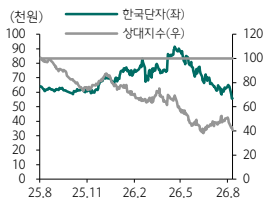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6,852.58
52주 최고/최저(원)	91,400/55,600
시가총액(십억원)	564.4
시가총액비중(%)	0.01
발행주식수(천주)	10,115.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24.4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7
외국인지분율(%)	28.72
주요주주 지분율(%)	
이창원 외 10 인	34.28
Yazaki	7.23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455	1,527
영업이익(십억원)	141	153
순이익(십억원)	120	129
EPS(원)	11,854	12,743
BPS(원)	123,490	132,625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1,168	1,297	1,510	1,443
영업이익	64	112	171	139
세전이익	70	100	201	136
순이익	49	73	142	106
EPS	4,677	7,000	13,654	10,383
증감율	(22.6)	49.7	95.1	(24.0)
PER	11.1	10.7	4.9	6.5
PBR	0.6	0.8	0.6	0.6
EV/EBITDA	3.9	4.5	2.6	2.4
ROE	5.6	7.8	13.2	9.1
BPS	83,872	89,779	103,622	114,828
DPS	700	700	2,200	3,200

Analyst 송선재 sunjae.song@hanafn.com
RA 박태웅 taewoongpark@hanafn.com

2Q26 Review: 영업이익률 4.5% 기록

한국단자의 2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다(영업이익 기준 -47%). 매출액/영업이익은 +4%/-52% (YoY) 변동한 3,951억원/178억원(영업이익률 4.5%, -5.2%p (YoY))을 기록했다. 매출액이 증가했지만, 5월부터 신규로 케이티인터내쇼날이 편입된 효과를 제거하면 동일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대비 1% 감소한 것이다. 전기차 물량 감소와 고객사 모델 노후화에 따른 생산 감소로 미국/폴란드 법인의 매출액이 27%/18 (YoY) 감소한 영향이다. 제품별로는 차량용/전자용이 4%/7% (YoY) 증가한 가운데, 구리 스크랩 판매가 반영되는 기타 매출액은 24% (YoY) 증가했다. 차량용/전자용 커넥터의 평균가격은 믹스 개선에 힘입어 각각 3%/1% (YoY) 상승했다. 매출총이익률이 4.5%p (YoY), 3.9%p (QoQ) 하락한 12.4%였고, 영업이익률은 5.2%p (YoY), 3.1%p (QoQ) 하락한 4.5%를 기록했다. 실질 외형이 정체된 가운데, 고정비 부담이 늘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구리 등 비철원재료의 원가가 36.7% (YoY) 상승한 영향이다. 또한, 와이어링 하네스를 생산하는 연결 법인인 케이티네트워크가 외형이 성장했지만, 비용 이슈로 인해 적자로 전환한 것도 부정적이었다. 영업이익 감소에도 세전이익/순이익은 51%/43% (YoY) 증가했는데, 외환손익이 296억원 (YoY) 개선되었고, 케이티인터내쇼날 인수와 관련하여 염가매수차익 49억원이 일회성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관심있게 체크해야 할 3가지 내용: 원가, 케이티네트워크, 비용 보전

2분기에 관심있게 봐야 할 내용은 3가지이다. 첫째, 원재료가 상승이다. 전체 원가에서 원재료 비용이 60%를 차지하는데, 특히 구리 등 비철금속이 원재료의 70% 이상이다. 구리 가격은 LME 기준으로 2025년 8월 $9,500/톤에서 2026년 8월 $14,000/톤으로 50% 가까이 상승했다. 한국단자는 변동 계약으로 가격 상승분을 판가로 전가하고 있지만, 급격한 상승을 만회하기 위해 7월 이후 추가적인 판가 인상을 진행 중이다. 둘째, 케이티네트워크의 부진이다. 케이티네트워크의 2분기 매출액은 EV/HEV용 하네스 증가로 16% (YoY) 증가했다. 하지만, 베트남으로 생산지를 일부 조정하고, 물량이 추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베트남 공장의 인력수급 문제에 따른 긴급 생산/운송 상황이 발생했고, 케티이네트워크 및 베트남 법인의 수익성이 예상과 달리 하락했다(2분기 케이테네트워크/베트남법인의 순이익이 각각 -38억원/-29억원 기록). 향후 생산 문제가 해결되면서 안정화될 것이다. 셋째, 고객사로부터의 비용 보전이다. 미국 법인이 고객사 전기차 부진으로 2025년 이후 실적이 하락하면서 고객사로부터 비용 보전을 진행 중인데, 관련 내용이 2분기 매출채권과 비유동/유동 계약부채(+136억원/+402억원) 형태로 반영되어 있고, 향후 진행에 따라 매출 형태로 반영될 것이다.

실적 반등과 신사업을 기대

2분기 구리 가격 상승과 케이티네트워크/베트남 법인의 일시적인 생산 차질은 3분기부터 판가 인상과 생산 안정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이다. 미국 법인의 비용 보전은 향후 매출로 인식되면서 반영될 것이다.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P/B 0.47배이고, 기대 배당수익률은 5% 후반(주당 배당금 3,200원 기준)인 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실적 반등과 신사업(로봇/반도체/ESS용 커넥터)을 염두에 둔 저가 매수의 시기라는 판단이다.

2026년 08월 21일 | 기업분석_Update

KCC (002380)

특별배당금 신설로 시가배당률 2.5~4%p 상향 가능

BUY (유지)

목표주가(12M)	730,000원
현재주가(8.20)	474,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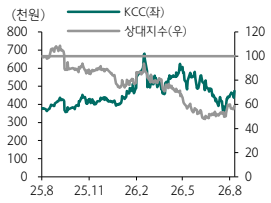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6,852.58
52주 최고/최저(원)	680,000/352,500
시가총액(십억원)	4,077.3
시가총액비중(%)	0.07
발행주식수(천주)	8,592.9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32.4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5.7
외국인지분율(%)	20.51
주요주주 지분율(%)	
정몽진 외 13 인	35.56
국민연금공단	9.27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6,838.6	7,183.7
영업이익(십억원)	444.7	503.2
순이익(십억원)	1,748.0	292.5
EPS(원)	201,206	34,035
BPS(원)	1,267,683	1,318,047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6,658.8	6,483.8	7,078.6	7,452.4
영업이익	471.1	427.6	483.7	591.2
세전이익	507.6	2,388.8	3,445.8	391.6
순이익	343.8	1,538.5	2,618.8	297.6
EPS	38,691	173,128	301,434	34,637
증감율	61.68	347.46	74.11	(88.51)
PER	6.09	2.43	1.57	13.70
PBR	0.38	0.46	0.38	0.38
EV/EBITDA	7.35	9.27	5.74	4.95
ROE	6.58	23.51	28.85	2.85
BPS	626,887	914,799	1,237,978	1,259,778
DPS	10,000	15,000	15,000	15,000

Analyst 윤재성 js.yoon@hanafn.com
RA 김형준 do200508@hanafn.com

순항 중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번에는 특별배당금 신설

8/20일 KCC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2026년 Ver.)이 추가로 발표되었다. 회사는 1년 전인 2025년 8/14일 1차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1) 재무목표: 매출액 10조원, OPM 10%, 이자보상배율 2배 이상, PBR 1배 이상 2) 최소배당금 6천원 + 경영성과에 따른 추가 배당금 지급(별도 영업이익 1천억원 이상 시, 이익의 10% 추가 배당)을 제시했다. 2026년 3/9일에는 자사주(17.2%) 중 임직원 보상 목적을 제외한 나머지 전량인 13.2%를 2027년 9월 내로 분할 소각할 계획을 밝혔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서 눈에 띄는 점은 '삼성물산 특별배당금에 연동된 특별배당금 추가 신설'이다. 즉, 기존 배당정책인 최소배당금 6천원+추가배당금에 더해 삼성물산 특별배당금 수취액의 50% 이상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삼성물산 특별배당금은 삼성물산 주당 배당금에서 최소 주당배당금인 2,500원을 제거해서 산정하며, 배당금 지급 후 잔여 재원은 차입금 상환 등 재무구조 개선에 활용하며, 지급률(50% 이상) 등 세부 기준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특별배당금 신설에 따른 시가배당률 개선효과는 2.5~4%p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024~26년 FCF는 약 320조원으로 추정되며, 총 환원 재원(FCF의 50%) 약 160조원 가운데, 이미 집행한 금액 및 예정액(39조원) 제외 시 잔여 재원은 12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삼성물산은 2026~28년 관계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 수익의 60~70%를 주주에게 환원하고, 최소 배당금 2,500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하나증권은 최소/최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1) 최소: 삼성전자 특별배당 비중 50%, 삼성물산 환원율 60%, KCC 재환원율 50% 가정. 해당 가정 하에서 KCC의 특별 DPS는 11,664원으로 추정되며, 기존 배당까지 합친 총 DPS는 21,744원으로 시가 배당률은 4.6%다. 2) 최대: 삼성전자 특별배당 비중 70%, 삼성물산 환원율 70%, KCC 재환원율 50% 가정. KCC의 특별 DPS는 19,052원으로 추정된다. 기존 배당까지 합친 총 DPS는 29,131원으로 시가 배당률은 6.1%다. 특별배당이 없을 경우의 시가배당률 2.1%와 비교 시, 2.5~4%p의 시가 배당률이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삼성물산의 현금흐름이 KCC 주주에게 환원되는 과정

BUY, TP 73만원을 유지한다. 이번 특별배당 신설은 보유한 삼성물산의 현금흐름이 KCC 주주에게 환원되는 과정이다. 게다가, 향후 보유지분 매각 시의 차익에 대해서도 주주환원 하겠다는 언급을 공식화 한 점도 긍정적이다. 아쉬운 점은 KCC의 특별배당 재환원율이 50% 이상으로 제시된 점인데, 향후 이사회 논의 과정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상향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실리콘의 Up-cycle 진입과 6조원에 달하는 주주 환원 정책 강화 등을 감안하면 충분한 주가 상승여력이 있다. 현 주가는 PBR 0.38배로 절대 저평가 상태다.

시장 안정되면 장비주 급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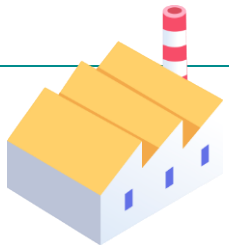
통신 서비스/장비 Weekly | 2026.8.21

Analyst 김홍식_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주간 동향 및 코멘트

다음주 투자 전략 및 이슈 점검

- 국내 통신장비 업체 2026년 2분기 실적이 모두 발표되었다. 연결 영업이익 순으로 나열하면 RFHIC가 112억원, 유비쿼스 90억원, LIG아큐버 56억원, RF머트리얼즈 53억원, 쏠리드 35억원, 우리넷 5억원, 오이솔루션 -9억원, KMW가 -63억원, HFR -77억원을 기록하였다. 매출액도 그렇지만 영업이익 기준으로 봐도 당사 및 시장 예상치와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작년과 비교하면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공급업체 감소로 인해 상위 업체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국내 아웃소싱 업체들의 M/S가 상승한 데 따른 결과이다. 아직 수요가 증가하는 흐름도 아닌데 대다수 업체들의 매출이 유지 또는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익 증가 또는 적자 폭 감소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실적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4분기 성수기 진입과 더불어 2027년도에는 본격적인 신규 주파수 투자 붐이 미국을 중심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 빅사이클 진입 시 이익 수준에 투자가들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본격적인 수요 증가가 나타나면 사상 최대 이익 달성과 더불어 역대 최고 주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여전히 국내 투자가들은 미국 광통신주를 벤치마크하여 국내 통신장비주 투자에 나서는 움직임을 자주 보인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다. 이미 미국 광통신주는 최근 2년간 주가가 급등한 가운데 후행적으로 최근 이익이 급증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지만 무선통신주는 최근 1년간 상대적으로 오름 폭도 크지 않고 영업이익도 이제 적자를 탈피하는 수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루멘텀/코히런트를 기준으로 국내 RFHIC/KMW 주가를 예측하는 것은 틀릴 가능성이 높다. 무선통신주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 대규모 주파수 경매가 2027년 4월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어질 전망이고 국내에서도 서서히 신규 주파수 할당 논의가 개시될 예정이다. 그러므로 무선통신장비주의 경우엔 아직 대세 상승기 초반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판단이다. 2026년 하반기엔 미국과 국내 통신장비 시장 개화, 2027년엔 본격 실적 회복, 2028년엔 사상 최대 실적 달성 기대감으로 단계적 주가 상승이 나타날 것임을 감안 시 아직도 2년 이상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대다수 업체가 향후 2년 내 역대 가장 높은 시가총액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KMW/RFHIC/HFR/LIG아큐버/쏠리드/오이솔루션에 대한 적극 매수를 추천한다
- 국내 통신서비스 업종의 경우엔 연말까지 20% 수준의 수익률 달성을 목표로 한 저점 매수를 추천한다. 하지만 SKT와 KT/LGU+ 주가 움직임은 다소 상이한 것으로 예상하는데 SKT의 경우엔 AI 독자파운데이션 모델, AI RAN, SK 하이퍼 관련 성과를 바탕으로 주가가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 반면 KT와 LGU+는 매력적인 밸류에이션과 자사주 수급을 바탕으로 한 주가 움직임이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SKT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KT와 LGU+ 역시 낮은 Multiple 및 2027년 서비스매출액 성장 기대감을 바탕으로 점진적 주가 상승이 예상된다.
- 다음주 통신서비스 업종 종목별 투자 매력도는 SKT>KT=LGU+ 순으로 제시한다. 통신 3사 중에서는 SKT를 최선호하지만 KT와 LGU+ 역시 현 주가에선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평가한다. 통신장비주 중에선 미국 어퍼 C밴드 관련주에 집중 투자할 것을 권한다. KMW/HFR/RFHIC/LIG아큐버가 대표 수혜주이다.



2040년 전력수요 전망치 대폭 상향

유틸리티 Weekly | 2026.08.21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RA 박시현 boxyhyun@hanafn.com

주간 리뷰 및 관심종목

주간 리뷰

- 주간 커버리지 합산 수익률은 시장을 3.3% 하회했다. 19일 종가 기준 WTI 87.3달러/배럴(WoW +2.7%), 미국 천연가스 2.8달러/mmbtu(-0.4%), 아시아 LNG 현물 22.1달러/mmbtu(+4.0%), 호주산 유연탄 129.8달러/톤(+0.2%), 원/달러 환율 1,388.5원(-2.1%)을 기록했다. 아시아 LNG 현물 가격이 연말까지 가장 관심있게 봐야 할 지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지난 4월 공개되었던 12차 전기본 전력수요 전망이 3대 메가프로젝트 수요를 감안하여 재산정되었다. 2040년 연간 전력소비량은 657.6~694.1TWh에서 847.3~885.1TWh로 증가했다. 최대전력 목표 수요는 131.8~138.2GW에서 158.4~165.0GW로 상향되었고 예비율 고려 적정 설비용량은 160.8~168.6GW에서 193.2~201.3GW로 확대되었다. BTM 포함 전력 총수요가 104GW 수준으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피크기여도 기준 6~70GW 내외 수준의 설비가 추가되어야 하는 수치다. 최대수요 전망치 중 반도체 포함 첨단산업 20.6GW, 데이터센터 7.9GW가 추가되었다. 데이터센터 2단계 목표 10GW는 향후 진행 상황을 감안하여 13차 전기본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수요를 감안하면 7~8GW 수준의 추가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 지역별 도매가격제(LMP) 도입과 관련한 규칙 개정이 3분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소매요금 차등화에 이어 도매가격도 동시에 개편되며 LMP는 전력거래소, 소매요금은 한국전력이 주관하는 구조다. 4개 권역(수도권 북부, 수도권 남부, 중부권, 남부권)으로 나누는 소매요금과 달리 도매요금(LMP)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할 것으로 보인다. 송전계통이 포화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가격이 분리되는 구조로 설정될 예정이며 수도권은 도매요금 상승, 비수도권은 도매요금 하락이 예상된다. 비수도권 발전사업자의 경우 LMP가 기존 SMP 대비 하락하는 구조로 확정된다면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정산조정계수를 통해 수익이 보전되는 발전자회사 소유 및 민간 석탄화력발전소는 타격이 제한적일 수 있으나 민간 재생에너지 및 LNG 발전사업자는 기존 대비 수익성이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 2027년 초부터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월말 공청회에서 윤곽이 확인될 전망이다.
- 언론에 따르면 소매요금 조정의 경우 산업용 전기요금 182원/kWh으로 기준으로 권역별로 10% 내외 수준의 하향이 제시되고 있다. 남부권 최대 18원, 중부권 최대 15원, 인천 등 수도권 북부는 최대 10원 가량 인하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언급되었는데 기후부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임을 밝혔다. 전력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신규 발전설비를 유치한다는 목적이지만 정부의 탄소 중립 강화 정책을 볼 때 수도권에 기존 화석연료 기반 발전원(LNG 또는 연료전지)이 아닌 대규모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언론에서 언급한 10% 내외의 인센티브만으로 물리적인 입지 제약을 극복하면서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가 빠르게 확대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수 있다.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폐지 후 정부가 경쟁입찰을 통해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로 전환된다. 2027년부터 신규 태양광과 풍력 발전사업은 계약시장 경쟁입찰에 참여한다. 전원별 입찰에서 낙찰된 설비는 전기판매사업자와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은 SMP과 계약가격의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장기 고정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설계된다. REC 발급은 신규 발전설비에 대해 발급이 중단되며 기존 설비는 해당되지 않지만 REC 현물시장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계약시장으로 통합된다. 단일 계약시장에서 입찰 가격 하락 추세가 강화될 경우 정부 계약시장 낙찰량이 시장 공급 대비 적게 형성될 수 있으며 이는 PPA 시장 활성화로 확산이 가능하다.
- 온실가스 배출권(KAU25) 가격은 20일 종가 기준 30,100원으로 전주대비 9.7% 상승, YTD 189.4% 상승했다.

종목 코멘트

- 한국전력: 계획 상 2040년까지 피크기여도 기준 현존 설비 50% 이상 증설 필요. 투자비 감안 시 지역별 요금 정책과 괴리
- SK이터닉스: 지역별 요금 인하 시 PPA 가격 하락 압력 발생 가능하나 장기 고정가격 계약인 점에서 변화 가능성 낮다고 판단

6월 ESS Battery : 북미 +76% 증가

2026년 6월 ESS Data in detail | 2026.8.21

투자의견	Overweight

Analyst 김현수 hyunsoo@hanafn.com

지역별 ESS 배터리 신규 설치량

(단위: GWh, %)

	지역	Grid		BTM		Total			Grid		BTM		Total	
		설치량	YoY	설치량	YoY	설치량	YoY		설치량	YoY	설치량	YoY	설치량	YoY
6월	글로벌	42.8	50.1	8.0	54.6	50.8	50.8	누적 (1-6월)	136.5	37.3	45.7	52.0	182.2	40.7
	북미	12.0	81.4	1.0	30.0	13.0	76.0		28.9	29.0	5.7	30.0	34.5	29.2
	유럽	2.5	521.0	1.8	117.2	4.2	248.7		13.1	161.9	9.1	117.2	22.2	141.5
	중국	10.3	-19.1	2.4	12.8	12.7	-14.6		51.8	-6.0	14.8	12.8	66.6	-2.4
	기타	18.0	106.5	2.8	92.4	20.8	104.4		42.7	152.4	16.2	92.0	59.0	132.3

자료: Rho Motion, 하나증권

주1) BTM(Behind The Meter) : 전력량계를 기준으로 고객 측에 위치한 분산 에너지 자원. 가정, 건물, 공장 등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 저장,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주로 건물이나 시설 내의 태양광 패널,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이 해당. 발전소, 송배전망 등 전력회사가 관리하는 FTM(Front The Meter)과 대비되는 개념

전력망(Grid) 시장 내 연계 유형별 ESS 배터리 신규 설치량

(단위: GWh, %)

	연계 유형	설치량(GWh)	YoY(%)		설치량(GWh)	YoY(%)
6월	Grid	32.5	80.4	누적 (1-6월)	94.4	52.2
	Wind+Solar	0.1	-98.0		3.1	-59.5
	Wind	0.6	-33.2		3.2	-50.3
	Solar	9.5	89.7		33.4	48.2
	기타	0.1	-28.7		1.4	98.4

자료: Rho Motion, 하나증권

글로벌 ESS 케미스트리별 신규 설치 비중

케미스트리

- 6월 글로벌 ESS 케미스트리별 비중은 LFP 95.4%(MoM +1.7%p), NCM 1.8%(MoM -1.3%p), Flow Battery 0.9%(MoM +0.8%p), Sodium based 0.5%(MoM -0.2%p), 기타 1.5%(MoM -1.1%p)

시사점 및 의견: 북미 가파른 성장 재개, 하반기 추가 수주 가능성

- 6월 글로벌 ESS 신규 설치량(Grid+BTM)은 50.8GWh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2026년 누적(1-6월) 기준으로는 182.2GWh의 신규 ESS가 설치되며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다. 월별 설치량 변동성이 큰 산업 특성을 감안하면 누적 성장률 흐름이 중요한데, 6월 누적 기준 글로벌 ESS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최근 북미 출하량의 전월 데이터 사후 수정 폭이 매우 커, 이를 반영하여 6월 데이터 재 발간. 7월 데이터 역시 사후 조정 가능성 고려해 9월에 발간 예정). 북미 시장의 6월 ESS 설치량이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하며 글로벌 성장을 견인했다. 북미 ESS 상반기 누적 설치량은 +29% 증가했다.
- 신규 설치량의 84%를 차지하는 전력망(Grid) ESS의 경우, 6월 42.8GWh(YoY +50%)가 신규 설치됐다. 2026년 누적(1~6월) 글로벌 Grid ESS 설치량은 136.5GWh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북미 Grid ESS 설치량 역시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했고, 유럽은 6월 2.5GWh, 누적(1~6월) 13.1GWh의 Grid ESS가 신규 설치되며 월간 및 누적 기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세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에 따른 전력망 안정성 확보 수요가 증가하면서 ESS 설치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설치량 중 16%를 차지하는 BTM(Behind The Meter) 시장에서는 6월에 글로벌 8.0GWh(YoY +55%)의 ESS가 신규 설치돼 가동을 시작했다. AI 데이터센터 및 상업·산업용(C&I) 전력 수요 확대를 중심으로 BTM 시장 역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 전력망(Grid) 시장 내 연계유형별 설치량을 살펴보면, 송전망에 직접 연결돼 전력 상황에 따라 충·방전을 수행하는 독립형 BESS(Stand-alone BESS)가 6월 32.5GWh가 신규 설치되며 전년 대비 +80% 증가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초대형 Grid ESS 프로젝트 상업운전이 늘어나면서 중동 지역 설치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한편, 8월 18일, 미국 펜실베니아 주지사는 피크전력 25MW 초과 대형 데이터센터 허가와 관련해 발전 및 송배전 관련 비용을 개발사가 부담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지난 3월 미 연방정부가 하이퍼스케일러와 체결했던 납세자 보호서약(Ratepayer Protection Pledge)과 유사한 정책 철학을 담고 있다. 두 사안 모두 핵심은 데이터센터가 필요한 전력과 인프라를 직접 확보해야 한다는 것인데, 처음에는 이 것이 허들로 작용하겠으나, 이렇게 직접 전력을 확보하는 기업에게는 오히려 인허가 절차를 단축 시켜주는 내용이 담겨있어 향후 직접 발전 및 송배전 시설을 설치하는 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 내 발전원과 연계해 피크 수요와 계통 부담을 낮추고 백업전원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온사이트 ESS의 구조적 수혜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다(관련 기업 :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8/18	274,500	271,000	-1.28%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삼성전기 (009150.KS)	8/18	1,558,000	1,396,000	-10.40%	• AI 서버용 고용량 MLCC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공급사들의 증설은 제한적 • AI 가속기용 FCBGA의 대형화·고다층화로 구조적 공급 부족 장기화 전망
삼성물산 (028260.KS)	8/18	369,000	374,000	1.36%	• 원전·SMR·태양광·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신사업 확대와 2027년 배당 증가 전망 • 2026~2028년 계열사 배당수익의 60~70%를 주주에게 환원할 계획
기아 (000270.KS)	8/18	141,700	131,100	-7.48%	• 하반기 미국 HEV 생산 확대와 신차 투입에 따른 판매 믹스 개선 기대 • 원재료 가격 안정과 우호적 환율, HEV 중심의 고수익 차종 판매 확대를 통한 실적 기대
삼성SDI (006400.KS)	8/18	516,000	499,500	-3.20%	• EV 배터리 합작사 리스크가 해소되고 ESS 생산기지로의 전환 여력 확대 • 북미 ESS 수요 증가에 대응해 2027년까지 약 30GWh 수준의 ESS CAPA 확보 예상
LG (003550.KS)	8/18	120,000	110,400	-8.00%	• 주요 전자계열사의 실적 개선이 본격화되며 지주사 NAV와 이익 체력 개선 기대 • 엔비디아와의 AI·로봇·데이터센터 협력 확대 가능성이 중장기 지주사 할인율 축소 요인
S-Oil (010950.KS)	8/18	147,600	142,600	-3.39%	• 정제마진 강세와 윤활기유 스프레드 급등으로 3Q26 영업이익 1.08조원 예상 • 하반기 모멘텀 1) 윤활기유 추가 이익 확대 2) OSP 마이너스 재확인 3) 유가 안정
농심 (004370.KS)	8/18	437,500	441,000	0.80%	• 2Q26 Review 매출액 9,561억원(YoY +10.2%), 영업이익 593억원(YoY +47.6%) 기록 • 북미 수익성 개선 및 글로벌 라면 업체로의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
로보티즈 (108490.KQ)	8/18	280,000	262,500	-6.25%	• 휴머노이드 시장 확대에 따라 핵심 부품인 DYNAMIXEL 액추에이터 수요가 급증 • 액추에이터 CAPA를 대폭 확대하며 글로벌 피지컬 AI 시장 선점 가능성 부각
제닉 (123330.KQ)	8/18	27,300	29,650	8.61%	• 글로벌 하이드로겔 마스크 수요 급증과 미국 오프라인·유럽 시장 확대로 고성장 지속 • PDRN 하이드로겔 수율 안정화와 생산라인 증설로 수익성 개선 본격화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2.82%	-1.36%p	+72.70%	+11.08%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NAVER (035420.KS)	8/18	228,000	219,500	-3.73%	• AI 브리핑·AI 탭 고도화와 커머스·Npay Connect 확대로 B2C 경쟁력 강화 기대 • 엔비디아와 글로벌 AI 팩토리·네오클라우드 사업을 추진하며 2027년부터 B2B 매출 본격화
키움증권 (039490.KS)	8/18	300,500	275,500	-8.32%	• 브로커리지와 ETF LP·PI 트레이딩 호조로 2Q26 순이익이 컨센서스를 33% 상회 • 국내 거래대금 둔화에도 높은 해외주식 경쟁력을 바탕으로 견조한 실적 유지 가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12450.KS)	8/10	1,097,000	1,167,000	6.38%	• K9 자주포·천무 중심의 유럽·중동 수출 확대로 지상방산 수주잔고 약 39.7조원까지 증가 •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성장과 수주 기대감 재차 확대될 전망
삼성SDI (006400.KS)	8/10	459,000	499,500	8.82%	• 북미 ESS 라인 본격 가동과 소형전지 가동률 상승으로 하반기 흑자 기조 지속 기대 • 2Q26 7개 분기 만의 흑자 전환에 이어 2027년 영업이익 1.48조원 전망
팬오션 (028670.KS)	8/10	6,040	5,770	-4.47%	• BDI 강세와 탱커 운임 상승으로 벌크·탱커 부문 이익이 확대되며 호실적 기대 • SK해운 인수 VLCC의 실적 기여와 중장기 운임 강세가 추가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
삼성전자 (005930.KS)	8/3	262,500	271,000	3.24%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삼성전기 (009150.KS)	8/3	1,142,000	1,396,000	22.24%	• AI 서버용 고용량 MLCC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공급사들의 증설은 제한적 • AI 가속기용 FCBGA의 대형화·고다층화로 구조적 공급 부족 장기화 전망
아모레퍼시픽 (090430.KS)	8/3	130,000	136,600	5.08%	• 북미·유럽과 코스알엑스의 고성장으로 글로벌 실적 개선세 본격화 • 지역·채널 다각화 성과를 기반으로 글로벌 멀티브랜드 기업으로의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
풍산 (103140.KS)	8/3	71,200	79,000	10.96%	• 전기동 가격 강세에 따른 메탈 이익과 해외 신동 자회사 수익성 개선 기대 • 2분기 이연된 방산 매출의 3분기 인식으로 실적 반등 예상
SK이노베이션 (096770.KS)	7/20	121,400	125,900	3.71%	• 윤활기유 호조와 SK온 적자 축소에 힘입어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상회 전망 • 정제마진 강세와 그룹3 윤활기유 공급 부족으로 2026년 사상 최대 영업이익 기대
KB금융 (105560.KS)	7/13	184,400	160,000	-13.23%	• 2분기 추정 순익 1.97조원으로 2조원에 육박해 지주사 설립 이후 분기 최대 순익 예상 • 홍콩 ELS 과징금 이슈 해소로 주주환원 확대 및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삼양식품 (003230.KS)	7/1	1,119,000	1,397,000	24.84%	• 미주·중국·유럽 중심의 해외 매출 고성장과 밀양2공장 가동률 상승으로 실적 성장 기대 • 중국 신공장 가동 및 추가 생산시설 검토로 해외 비중 확대와 단기 실적 모멘텀 부각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3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7.01%	-0.93%p	+40.21%	-21.44%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미국AI테크TOP10 (485540)	2026.07.16	16,205	15,035	-7.2%	• 미국에 상장된 대형 기술주 중 AI 관련 키워드 유사성이 높은 10개 종목을 선별하여 유동시가총액과 LLM 스코어링을 합산하여 편입 비중을 산정. 1위~3위 기업은 각각 20% 비중으로 편입해 집중도를 높인 구조 • 현재 핵심 편입 종목은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이며, AI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춰 새롭게 부상하는 AI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
WON 초대형IB&금융지주 (0154F0)	2026.02.24	15,160	11,695	-22.9%	•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와 주요 금융지주 등 핵심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 초대형 IB의 구조적 성장성과 금융지주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을 동시에 추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등 국내 금융 섹터를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
KODEX AI반도체TOP2플러스 (395160)	2026.02.27	29,560	40,210	36.0%	•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PLUS 글로벌HBM반도체 (442580)	2026.07.16	106,895	101,965	-4.6%	• HBM(고대역폭메모리) 밸류체인의 핵심 제조사와 장비·부품·소재 기업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HBM 집중 테마 ETF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 합산 비중이 75% 수준으로 핵심 제조사에 집중된 구조이며, 그 외 글로벌 장비, 부품 관련 기업까지 편입해 HBM 성장 모멘텀 전반의 수혜 기대
ACE 고배당주Plus커버드콜액티브 (0199C0)	2026.07.16	9,980	9,185	-8.0%	• 고배당주 80%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10% 비중으로 편입하여 고배당주 포트폴리오로 시장의 흐름을 추종할 수 있는 커버드콜 액티브 ETF • 포트폴리오의 30% 비중까지 콜옵션을 매도하는 구조로 월 분배금 재원을 마련하고 비과세 배당 종목을 편입하여 배당과 절세를 함께 추구. 향후 국내 데일리 옵션(0DTE) 도입 시 추가적인 배당 재원 확보 가능. 액티브 운용방식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커버드콜 비중 조절
TIME 글로벌우주테크&방산액티브 (478150)	2026.07.16	21,300	20,825	-2.2%	• 우주 산업의 성장과 방산기업들의 안정적인 실적 모멘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액티브 ETF로 시장 상황에 맞게 편입 종목과 비중을 유연하게 조정 • SpaceX 상장 이후 본격화되는 우주 산업 투자 사이클과 글로벌 주요국들의 국방비 증액 추세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TIGER 글로벌AI사이버보안 (418670)	2026.07.16	18,430	17,440	-5.4%	• 글로벌 기업 중 사이버보안 연관 산업에서 매출이 50% 이상 발생하는 기업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패시브 ETF • AI 확산 과정에서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식이 AI로 인한 시장 잠식 우려 대상에서 AI 도입 시 필수 인프라로 전환됨에 따라 AI 보안 기업들의 가치 재평가 기대
KODEX 미국AI전력핵심인프라 (487230)	2026.07.16	23,200	20,160	-13.1%	• AI 성장 과정 속에서 전력 인프라는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핵심 분야로 관련 기업들은 공급자 우위 구조 속에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흐름 • 주요 빅테크의 파트너로 선정되고 있는 미국 전력 생산·송배전·데이터센터 핵심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

주1: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주2: 전일종가는 한국 시간으로 전영업일 15시 30분 기준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CHAT (생성형 AI 및 기술)	2026.07.16	83.73	87.77	4.8%	• 생성형 AI 관련 기술을 통해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로 AI 밸류체인의 실질적인 성장 모멘텀을 누릴 것으로 기대 • 액티브 운용 방식으로 유연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가능하며 OpenAI와 앤트로픽 지분을 보유한 소프트뱅크그룹과 SK텔레콤을 편입해 비상장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업에 대한 간접 노출까지 확보한 차별화된 구성이 특징
KBWB (미국 은행)	2026.07.16	98.37	96.51	-1.9%	• IPO와 M&A 시장 회복, AI 인프라 자금조달 확대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미국 대형은행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 • 미국 금융 섹터는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 기조 속 주주환원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실적 성장 국면이 전개될 전망
CIBR (사이버 보안)	2026.07.16	91.89	95.54	4.0%	• 사이버보안 기업으로 분류되는 글로벌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대표적인 사이버보안 테마 ETF • 상위 5개 종목 합산 비중을 40%로 제한하여 대형주에 집중된 구조이면서도 그 외 네트워크 인프라, 사이버 방산 관련 기업까지 함께 편입해 사이버보안 밸류체인 전반에 노출 가능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03.23	75.80	86.07	13.5%	•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39.12	560.92	65.4%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버린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DRAM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2026.06.22	80.72	55.14	-31.7%	• AI 혁명 및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인 컴퓨터 메모리 및 스토리지 밸류체인 관련 글로벌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한 순수 메모리 테마 ETF • 광범위한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기존 ETF와 달리, HBM(고대역폭메모리) 및 차세대 DRAM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제조사에만 집중 투자하여 차별화된 고성장 모멘텀 수혜 기대
GRID (전력망 및 스마트그리드)	2026.07.16	177.67	182.78	2.9%	• 스마트그리드 및 전력 인프라 관련 매출 비중이 높은 글로벌 전력기기 기업들을 포괄적으로 편입하는 전력 인프라 테마 ETF •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사이클과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이 맞물리며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 모멘텀 지속될 것으로 기대
XBI (바이오테크)	2026.07.16	152.00	169.55	11.5%	• 미국 바이오테크 종목 약 150개를 동일가중 방식으로 편입하는 분산형 ETF로 중소형 종목들의 임상 및 M&A 이벤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구조 • 글로벌 빅파마들이 특허 만료를 앞두고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해 M&A를 비롯한 투자에 적극 나서면서 바이오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 개선 기대

주1: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주2: 전일종가는 한국 시간으로 전영업일 06시(썸머타임 적용시 05시) 기준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8.16	8.17	8.18	8.19	8.20	8.21	8.22
	▪ 일본 2분기 GDP (1.1%, 이전치 1.9%) ▪ 일본 6월 광공업생산 (4.9%, 이전치 4.2%) ▪ 중국 7월 소매판매 (0.6%, 이전치 1.0%) ▪ 중국 7월 광공업생산 (4.5%, 이전치 5.3%) ▪ 중국 7월 고정자산 (-6.7%, 이전치 -5.7%) ▪ 미국 8월 NAHB 지수 (35, 이전치 34)	▪ 유로존 8월 ZEW 서베이 (30, 이전치 26.3) ▪ 미국 7월 주택착공건수 (-5.9%, 이전치 19.0%) ▪ 미국 7월 건축허가 (0.6%, 이전치 -2.6%) ▪ 미국 7월 설비가동률 (76.3%, 이전치 76.1%) ▪ 미국 7월 광공업생산 (0.3%, 이전치 0.1%)	▪ 일본 6월 핵심기계수주 (9.7%, 이전치 -12.4%) ▪ 유로존 7월 CPI (E 2.9%, 이전치 2.9%)	▪ 중국 8월 금리 결정 (3.0%, 이전치 3.0%)	▪ 한국 7월 PPI (E --, 이전치 8.6%) ▪ 일본 7월 CPI (E 1.9%, 이전치 1.6%) ▪ 일본 8월 제조업PMI (E --, 이전치 54.5) ▪ 일본 8월 서비스업PMI (E --, 이전치 51.2) ▪ 유로존 8월 제조업PMI (E 51.8, 이전치 51.9) ▪ 유로존 8월 서비스업PMI (E 51.5, 이전치 51.7) ▪ 미국 8월 제조업PMI (E 53.9, 이전치 53.9) ▪ 미국 8월 서비스업PMI (E 54.0, 이전치 54.6)	
8.23	8.24	8.25	8.26	8.27	8.28	8.29
		▪ 한국 8월 소비자심리지수 (E --, 이전치 106.8) ▪ 미국 6월 FHFA 주택가격지수 (E --, 이전치 0.3%) ▪ 미국 7월 신규주택매매 (E --, 이전치 1.6%) ▪ 미국 8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E --, 이전치 90.8)	▪ 미국 7월 개인소득 (E 0.2%, 이전치 0.2%) ▪ 미국 7월 개인소비지수 (E 0.2%, 이전치 0.3%) ▪ 미국 7월 PCE (E 3.6%, 이전치 3.7%) ▪ 미국 7월 근원 PCE (E 3.3%, 이전치 3.3%) ▪ 미국 7월 내구재 주문 (E 0.6%, 이전치 0.5%)	▪ 한국 8월 금리 결정 (E 3.0%, 이전치 2.75%) ▪ 중국 7월 산업생산 (E --, 이전치 15.1%) ▪ 미국 7월 도매 재고 (E --, 이전치 0.2%) ▪ 유로존 9월 ZEW 서베이 (E --, 이전치 6.3)	▪ 일본 7월 실업률 (E --, 이전치 2.5%) ▪ 미국 8월 미시건대 소비자신뢰지수 (E --, 이전치 --)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